



# 라틴 아메리카에서 바라본 아시아 세계: 아시아 지역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클라우디우 코스타 피네이루 리우 데 자네이루 연방대학교

지역학은 특정 공간에 대한 학제적 연구에 전념하는 지식인의 역량을 개발해주지만 동시에 학자들을 자족하는 현실에 가둬놓을 수도 있다. 또한 북대서양에서 생산된 지식이 이 분야를 압도하는 현실을 정당화하고 결과적으로 탈식민 시대 주변부들 간의 지적 관찰을 저해한다.

이 글은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호기심을 역사적으로 개괄하면서 북반구(구미)의 분석틀이 가진 패권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시아 지역학을 탈지역화하는 데에 일조한다. 그 호기심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 첫째, 처음에는 식민제국의 관점을 모방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접근법을 통해, 이후에는 개발과 근대성 이론을 통해 정의되었다. 둘째, 19세기에는 귀족적이고 두서없는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문적인 학문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끝으로 세계 주변부 사이의 산발적인 연관관계에서 근대화의 대안적 모델로 변화했다. 필자는 남반구(Global South),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연구의 제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이 분야가 진일보할 수 있고 아시아 지역학이 탈중심화될 수 있으며 학제 간 논의가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학, 오리엔탈리즘, 근대성 이론, 대안적 모델

## I. 라틴 아메리카에서 본 아시아: 열대 오리엔탈리즘에서 제3세계주의와 신흥부국으로

아시아가 ‘세계적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라는 점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전 세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 호기심을 품었다는 점과 더불어 아시아가 지구사(地球史)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참여자라는 점은 특별히 아시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익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아시아에 대한 이러한 호기심은 과연 얼마나 ‘세계적’인가?

북대서양사(즉, 유럽사와 북미사)에 대한 인식만큼 아프리카 혹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역사는 잘 알고 있는가? 독일, 네덜란드, 미국, 영국의 ‘오리엔탈리즘’에 관해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가나, 페루, 베트남의 지적 전통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1. 개념적 제국: 공간에 대한 상상과 아시아

아시아에 관한 전 세계적인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동방(Orient)’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이다. 처음에 이러한 관점은 지식의 형태로 구축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모양새를 갖추었고, 궁극적으로는 식민 권력 구조에 이용되었으며 이는 다시 서구의 지배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맺는다. 이것이 곧 호세 F. 페레이라 마르틴스(José F. Ferreira Martins), 안와르 압델-말렉(Anouar Abdel-Malek), 그리고 훗날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오리엔탈리즘’을 개념화하면서 제기한 비판의 본질이다. 즉, 상상력은 권력이며 지식은 타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Martins, 1950; Abdel-Malek, 1963; Said, 1978).

마찬가지로 근대성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유럽이 (영토와 인민을) 식민화하는 맥락 속에서 태어난 상상력이라는 것은 결국 식민 제국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 그리고 권력 기구가 지닌 특권의 일부였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권력의 산물인 상상을 창출해내는 ‘북방(North)’이라는 가공의 세계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그 상상력이 발휘되는 대상인 상상의 ‘남방(South)’과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간극을 벌려놓는다(Pinheiro, 2015). 그 결과, 공간에 대한 상상(place-imagining)이 공간의 형성(place-making)으로 이어지는 도식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공간에 대한 상상은 그 공간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적으로 구축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Agnew, 1989; Gregory, 1994; Miyoshi and Harootunian, 2002).

## 2. 지역학 틀 내에서의 아시아

지역학이라는 틀은 왜인지 이러한 구도에 만연한 왜곡된 특성을 심화시킨 것

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지역학은 특정 공간의 학제적 연구에 전념하는 지식인들의 역량을 계발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빌렘 판 쉐델(Willem van Schendel)이 누차 지적했듯이, 지역학은 각각의 분야를 자기완결적인 현실에 갇혀 자기 연구 지역으로 정의된 공간을 몇 가지 특정한 주제, 방법론, 학문 용어와 같은 것들로 ‘신성화’하는 이른바 ‘개념적 제국(conceptual empire)’ 속에 고립시켜 버렸다(van Schendel, 2002: 647-668). 이러한 접근법이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 미친 또 다른 부작용은 탈식민 시대의 주변부들이 여전히 식민주의 시대에 그랬던 것과 같은 상호 고립과 무지의 사각지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학계는 직접적 교류를 한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으며 서로의 학문적 의제에 사실상 무지한 상태다. 심지어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들의 지리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식민주의가 그려놓은 제국의 경계선을 강화하고, 때로는 그 경계선을 ‘문화권’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는 또한 1950년대 이후 권력의 지정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가 아시아와 역사적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이 지역은 한 번도 자기 현실과 아시아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사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대거 독립했던 시기(1810~1840년대) 이후로 이 지역 신생 국가들의 초점은 항상 유럽에 있었다.

19세기 이래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관심은 간헐적이고 미미하며 불분명한데다 일관성 없이 그저 두 지역 간의 식민지 및 탈식민지적 유대를 통해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망각과 침묵, 그리고 모호함으로 귀결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접점이 되는 (혈연관계, 무역회사, 문화와 종교적 요소의 유동과 같은) 문화적, 상업적, 사회적 연결고리의 역사적 기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망각의 해악은 찰스 킬리(Charles Tilly)가 말하는 “사회적 관계에 축적된” 역사의 손실뿐만 아니라 남반구(Global South)의 주변부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를 약화시키고 지워버리는 ‘삭제와 망각의 정치’까지 포함한다(Tilly, 2000: 721-723). 이로 인해 상호 무관심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때 이 두 지역을 이어주었던 역사마저 침묵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학문적 소통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학 전체에도 실로 해로운 일이다.

## II.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기원

1800년대 후반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20개 이상의 아시아 관련 기관이 설립되었(다가 그중 많은 곳이 문을 닫았)고 70개 이상의 행사가 열렸으며, 20개 이상의 아시아 연구 전문 학술지가 출간되었(다가 일부는 폐간되었)다. 이 글은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에 관하여 19세기 ‘오리엔탈리즘적(Orientalistic)’이고 두서없는 귀족적 호기심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관심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예비적으로 개괄한다. 또한, 아시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간의 역사적 유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개관한다.

통념과 달리,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는 관계를 맺은 지 오래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 지역 간의 유대는 이베리아(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 식민 치하의 근대 초기에 중요했다가 영국이 경제-정치 무대를 장악했던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 사이에는 세계 지리가 분명한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되면서 감소했다. 반면, 1800년대 후반에는 점진적인 관계 개선이 진행되다가 지난 15년 사이에 대대적인 부활을 경험했다. 대략적으로 말해, 세계 주변부 간에 실질적인 관계,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발적이고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전 지구적 정치-경제 체제로서의 근대 유럽 식민주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식민시기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간의 교역은 다른 지역, 특히 남대서양에 걸친 교역로나 인도양의 유서 깊은 내부 교역망에 비하면 활발하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교역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Boxer, 1969). 예를 들어,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존속한 카레이라 다 인디아(carreira da Índia, the ‘India Run’, 인도 항로)는 근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항로 중 하나였다. 같은 시기, 고대에서 이어진 통상 관계와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둔 수많은 중소 규모 회사들은 남미와 아시아 일부 지역의 식민지 사이에 문화적,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에 일조했다(Varadarajan, 2005).

식민시대의 중심은 결국 상업적 관계이기는 했지만, 이 두 지역을 이어준 것이 오로지 경제문제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도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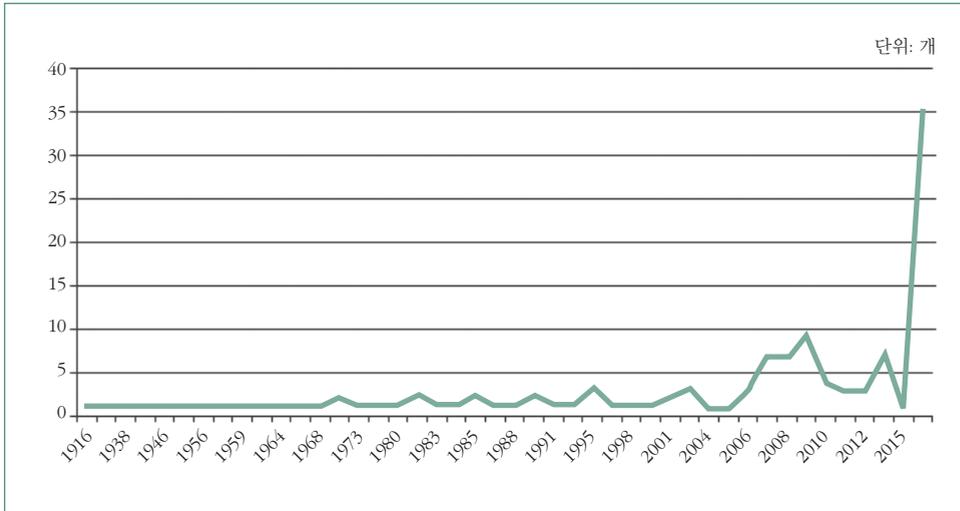
표 1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지적 호기심의 제도화 수준

국가	기관	행사	학술지	석좌
기아나	1	-	-	-
니카라과	1	-	-	-
멕시코	18	9	4	2
바하마	1	-	-	-
베네수엘라	3	1	1	1
볼리비아	1	-	-	-
브라질	29	13	12	1
수리남	-	-	-	1
아르헨티나	23	11	4	3
에콰도르	4	-	-	-
우루과이	1	-	-	-
자메이카	1	-	-	-
칠레	14	18	2	-
코스타리카	1	-	-	3
콜롬비아	14	18	-	-
쿠바	2	1	-	1
트리니다드 토바고	1	-	-	-
페루	7	-	-	-
합계	122	71	23	12

출처: 저자 작성.

나서 비로소 이 대륙의 원주민들을 인디오(indios, 직역하면 ‘인도 사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전까지 이 단어는 아시아, 특히 인도에 사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Reissner, 1980). 그러나 이때부터 ‘인디오’는 새로운 전 지구적 식민 질서에 따라 분류된 일군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시작했다. 즉, 특정한 민족과 관계된 인종 명칭이 아니라 탈영토화된 식민주의적 “타자”를 가리키는 정치적 개념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경영하는 관리뿐만 아니라 (강제, 원조, 자발적 이민 등을 통한) 인간 집단, 그리고 동·식물종과 문물의 이동은 단지 인간과 상품의 순환이 아니라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사이에 상상력의 유통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18세기 브라질 식민지 금광 지역의 종교 예술과 건축에 중국이 미친 영향(Teixeira Leite, 1999)이나 미 대륙의 흑인 종교 제례 용품이었던 식물에서 나타나는 아시아의 존재감은 확연하다. 사실 종교적·영적 분야는 19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 관련 기관 수(설립연도 기준)

세기 중남미에 상륙한 ‘동방’에 관한 특정 관점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종교들이 모시는 신이나 영령 중에 “아시아인” 혹은 “동방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있을 정도였다. 이 신령들은 대개 터번, 사리, 중국식 또는 “아랍” 복식을 하고 있었다. 업보(karma, 카르마), 윤회(reincarnation, 환생) 등 아시아 종교에서 비롯되어 라틴 아메리카 종교의 핵심이 된 몇몇 개념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

19세기는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관심이 확연하게 두드러진 시대였다. 동방(과 그에 관련된 폭넓은 주제들)에 관한 저술들이 처음 출판되기 시작했고 최초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외교 공관이 설립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 자취를 남겼고, 동방에 대한 남미 대륙의 호기심을 제도화하려는 최초의 시도 역시 이 시기에 독서 모임, 종교 단체, 언론, 협회, 출판 등을 통해 일어났다.

195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하던 아시아 관련 기관 중 절대 다수가 (신지학협회, 아시아 종교 사원, 아시아 종교에 영감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토착 종교 사원 등) 종교적·영적 분야 혹은 아시아 이민자 조직과 관련되어 있었다.

### III. 19세기와 20세기 아시아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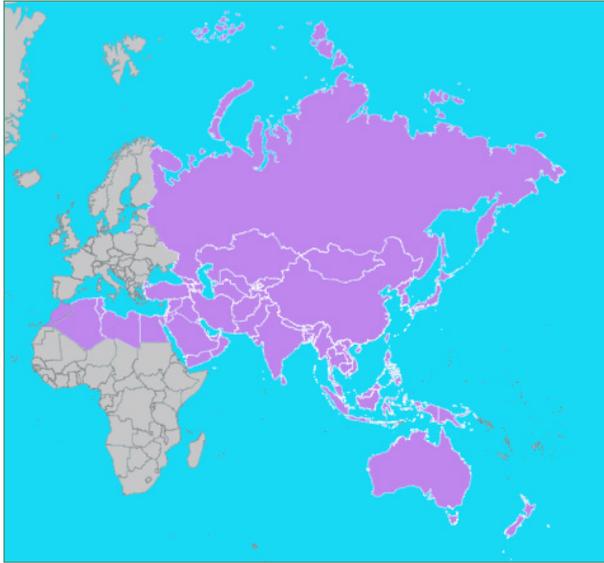
라틴 아메리카가 국가 건설, 헌법, 노예를 대체할 이민자 유입 등에 대한 여러 사상 간의 논쟁을 벌일 당시, 아시아는 유럽의 실증주의와는 대비되는 근대화외 또 다른 경로이자 새로운 문명적, 존재론적 모델의 원천처럼 보였다.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브라질, 페루, 쿠바와 같은 국가들은 아시아에서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실험을 했는데 노동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 출신이었다(Teixeira Leite, 1999; Hincapié, 2012).

동방과 관련된 영적·종교적 영역이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 분야는 특정한 종교와 결속되기보다는 영성, 초월, 인간 보편성과 같은 개념에 집중했다. 대부분은 (19세기 후반에 라틴 아메리카에 전파된) 프랑스의 심령론(French Spiritualism)에서 비롯된 신지학협회(Theosophical Society)의 출판물을 통해 유통된 서적과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인도, 일본, 중국의 서적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었다(Arzú, 2001, 2002).

아시아를 선조 문명이나 고대 종교와 동일시하는 경향은 결국 라틴 아메리카에서 동방을 상상할 때 연상하게 되는 시간 관념 속에 깊이 자리 잡았는데, 이는 한편으로 ‘태곳적 전통’, ‘유구한 문명’, ‘변치 않는 시간’과 같은 개념과 상응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세기 중반 아시아의 독립 운동은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호기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라틴 아메리카에게 아시아는 대체로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식민 시대 이전부터 식민 시대까지의) 과거로 서만 의미 있는 세계로 남았다.

다시 말해, “아시아”는 지리적 실체나 사회학적 범주로서가 아니라 “동방”으로 인식되었으며 여기에는 북아프리카, 오스만 제국, 오늘날의 중동과 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극동(Far East)”까지 포함되었다. 아시아는 식민주의, 골동품, 고대 문명, ‘동양’ 철학에 대한 비학문적 연구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인식은 현존하는 미술 소장품, 회화, 혹은 남아 있는 저작에도 상당 부분 투영되었다. 19세기 말은 라틴 아메리카의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이 이집트, 오스만 제국, 중동, 그리고 (소수의) 중국의 골동품을 획득하여 이들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라틴 아메리카에서 본 아시아의 지리적 범위: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한데 묶어 아시아 유물이라고 전시하던 시대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유통되었던 아시아에 대한 그림과 글 중 대부분은 유럽인들이 만든 것이었다. 아시아 작가들의 저작은 거의 없었고<sup>1</sup> 아시아 언어로 된 원서를 직역한 번역본은 전혀 없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지식인이 아시아 언어에 통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당시에 아시아 언어에 능통한 사람 중 대부분은 학자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관심은 귀족적 특권층(화가, 작가, 텔레탕트), 종교적·영적 영역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아시아 이주민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심의 원천은 관련 저작의 번역과 유통 혹은 학술지나 협회 창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종교와 영성 단체들이 1940년대

<sup>1</sup>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번역된 아시아 작가는 라빈드라나스 타고르(Rabindranath Tagore)이며, 그가 1914년 노벨상 후보로 지명된 후의 일이다. 브라질에서는 1948년까지 유일하게 출판물이 있는 아시아 저자가 바로 타고르였다. Pinheiro(2015)를 참고하라.

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 지역학 중 몇몇 분야의 제도화에 특히 적극적이었다. 또한 귀족 가문과 상류층의 독지가들은 아시아의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이국적인 문물, 주술, 영성과 시 문학에만 호기심을 보였다.

분명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아시아에 관한 라틴 아메리카의 상상은 유럽식 오리엔탈리즘의 상상을 모방하고 있었다(Said, 1978).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이 식민 시대와 탈식민 시대에 주변부 간의 관문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남반구(Global South)에 대한 상상력은 유럽이 사실상 독점하는 상태가 되었다. 식민주의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관계를 맺는 방식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호기심이 형성되는 방식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가 ‘열대 오리엔탈리즘(Tropical Orientalism)’, 즉 남미 대륙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소위 ‘라틴 아메리카식 오리엔탈리즘(Latin American Orientalism)’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 IV. 아시아의 매력, 1950~1980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념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사실 모든 탈식민지 주변부들은 전 지구적인 정치적, 지적 무대에서 자기 정체성을 일정한 틀 속에 가둬놓은 개발 논쟁, 그리고 이후에는 지역 연구 접근법에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는 공식적으로 학문적 탐구의 주제가 되었으며 역사, 경제, 사회과학, 문학, 언어와 같은 여러 학문 분과에서 아시아를 다루었다.

아시아는 여전히 식민 시대 이전과 식민 시대 문제에 관해서만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주제로 여겨졌지만 아시아가 개발 논쟁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분명하다. ‘제3세계(Third World)’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Sauvy, 1952), 전 지구적인 지정학이 재편되고 개발과 근대성이 부재한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지역이 새롭게 포착된 것이 이때였다. 이에 따라, 역사관과 시대 서술에서도 아시아를 유구한 과거의 땅으로서만이 아니라 비개발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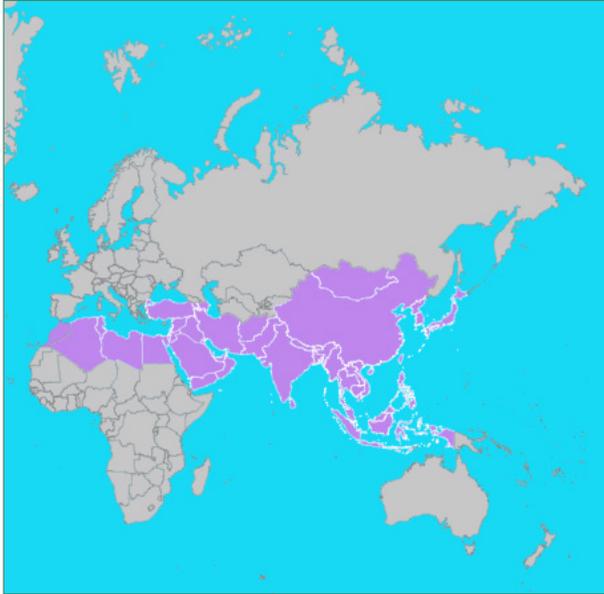
이자 근대성이 도래한 적 없고 변화와 진보의 가능성이 제한된 곳으로 규정되었다. 1950~198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는 여러 차례 독재 정권을 경험했고 군사 정권이 개발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진지한 고찰 대상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개발된 사회로서의) ‘미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던 이 시기야말로 두 지역이 (저개발이라는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한) 서로의 ‘현재’에 관심을 갖게 된 때였다.

아시아에 관심을 보인 학자들의 면면은 골동품 전문가와 호기심 넘치는 딜레탕트에서 전문 학자들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아시아 연구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껏해야 ‘제3세계 학자’ 혹은 ‘개발 학자’로서 아시아에 지엽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 고작이었다. 또한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와 같이 당시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이민자 공동체의 언어가 대부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시아 언어에 능통한 학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언어 능력은 아직 라틴 아메리카에서 학문의 필수 소양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관심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리적 인식(물리적 경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학계 정치와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 지역 연구 제도화도 영향을 받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최초의 아시아 지역학 학술지와 연구소, 학술 기관이 창립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중 대부분은 독립 운동과 반둥(Bandung) 정신, 비동맹 국가에 강한 영향을 받아 아프리카-아시아 지역 연구에 천착하거나 개별 국가(특히 일본)에 집중했다. 두 경우 모두, 학자들은 개발 논쟁에 관심을 가졌다. 아시아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과 불가분의 연관을 맺고 있었으며 ‘제3세계’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그려졌다.

1950년대부터 아프리카-아시아 지역학에 관한 다수의 연구소와 학술지가 나타났다지만 연구 의제가 정립된 것은 1970년대였다. 예를 들어, 1978년에 멕시코에 설립된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학 협회(ALADAA: La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studios de Asia y África)는 식민지배와 자본주의가 주변부 사회에 남긴 결과에 대한 이념적 논의에서 태동했다. 이와 같은 학문 연구 집단과 소규모 연구소들은 다소간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지속했다.

브라질 살바도르 소재 아프리카 동양 연구소(Centre of African and Oriental Studies)에서 1965년 학술지가 처음으로 나온 후, 곧이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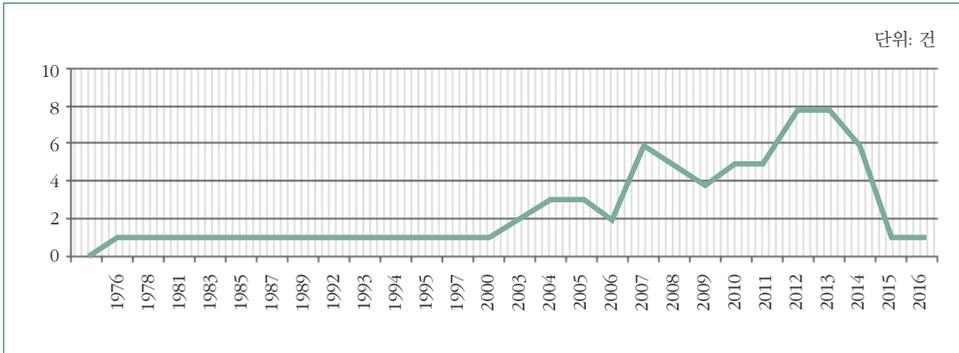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 라틴 아메리카에서 본 아시아의 지리적 범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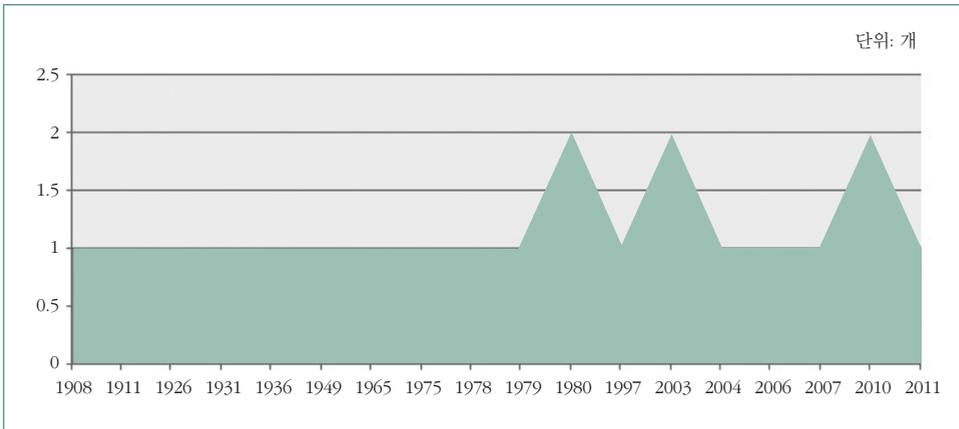
비슷한 기획들이 뒤따랐다.

제도화에는 (아시아 국가 외교 대표부의 출판, 학술 교류, 행사, 언어 연수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은) 문화 외교와 지원사업의 발전도 포함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자금 지원은 딱히 풍족하지는 않았다. 아시아 국가의 재단(Asiatic Foundations)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 정부의 공식 연구 지원 기관, 그리고 소규모로 각 대학 학과와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재단은 일본 재단(Japan Foundation),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 재단(Korea Foundation)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연구와 관심을 장려하는 데 치중했다. 이들은 언어 연구, (지역 전체가 아니라) 자국과 관련된 주제 연구 및 개발 협력으로 지원 분야를 한정했다.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부처와 공립 대학은 아시아에 관한 특정 프로그램, 학술지, 혹은 주제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소액의 자금을 운영하기도 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 관련 행사 연간 건수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 관련 학술지 수(참간연도 기준)

## V. 1990년대 이후의 제도화

라틴 아메리카의 학술 기관들이 아시아를 다른 의제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기껏해야 1990년대 이후부터다. 1990년대 이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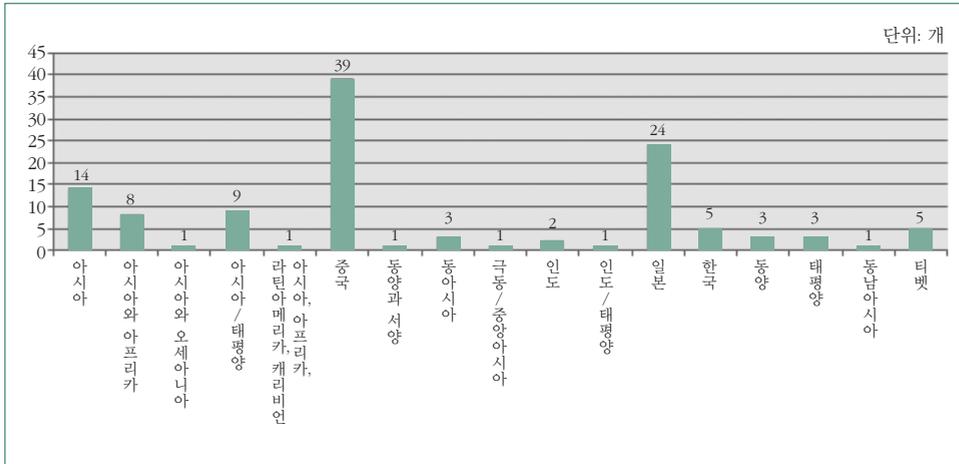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라틴 아메리카에서 본 아시아의 지리적 범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한 인식은 상당히 변화했다. 아시아는 고대 문명, 변치 않는 시간, 저발전이라는 불변의 현실이 존재하던 지역에서 갑자기 ‘미래의 땅’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저작과 연구들은 ‘다가오는 변영’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미래학적 예측과 더불어 아시아를 ‘궁극적 근대화’의 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아시아는 경제 개발 논쟁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지적, 정치적 의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 연구 분야는 신흥 개발과 근대성 담론을 포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경향에 걸맞게 이 새로운 근대성은 대체로 “신흥 경제”라는 관념과 결부된 특정 국가/지역, 즉 브릭스(BRICS), 아세안(ASEAN), “아시아의 호랑이들”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아시아가 라틴 아메리카에 예전보다 현재에 더 유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아시아 지역의 적실성은 여전히 개발 논쟁과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본처럼) 전통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적실성이 있던 국가/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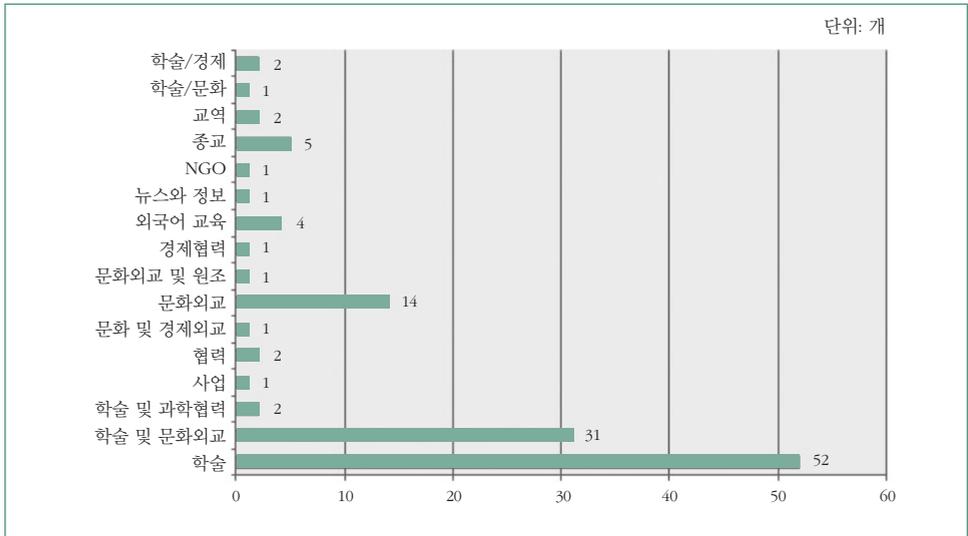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7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 및 개별 국가 연구기관 수

궁극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던 요소들이 지금은 약화되거나 사라진 반면,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공간들이 불쑥 나타난 현상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변화는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로 귀결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관심은 일본에서 중국이나 한국, 인도로 옮겨졌으며 아시아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더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가 고찰되는 주축은 여전히 개발이지만 여러 기관/학술지/행사들은 아시아에 대한 다른 지리적 접근을 시사한다. 개발이나 공적 협력 기구에 대한 관심과 달리 순수하게 지역 연구 분과를 표방하며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 학과와 같이) 지역적 구도에 따른 학제적 통합이 일어나기도 했고, 일부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과 공자 학원(Confucius Institute)이다.

1990년과 200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는 (어느 정도) 개발과 근대성을 달성한 지역으로 재규정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이 미래의 부와 번영을 공유하리라는 신념에 따라 공공 재단과 정부 기획을 통해 연구와 학술 협력에 투자가 진행되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8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연구 분야별 아시아 연구기관 현황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지적 호기심은 19세기 후반부터 가시적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그러한 관심의 상당 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신흥 국가’가 미래 발전의 주도 세력이라는 찬사가 나오면서 두 지역 내의 신흥 국가들 간에 협력이 정착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아시아 각국 재단이 연구와 역량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관심이 약화된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이는 각 재단들이 아시아 지역 혹은 대륙 전체의 관심사가 아니라 (자국 중심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자국어 연수 촉진 등) 국가 차원의 의제를 우선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따름이다. 이러한 ‘국가적 기획’이 무대에 더 많이 등장할수록 전체로서의 아시아가 설 자리는 줄어든다.

이 기간 동안, 직접적인 학술 교류도 급격히 발전했다. 아시아 관련 출판물 숫자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라틴 아메리카 저자들의 저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저작의 번역도 등장했다. 학술 행사의 숫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학자가 순회하는 횟수도 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지역학이 제도화되는 양상 전체가 바뀐 것이다.

## VI. 맺음말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관심은 19세기 중반 이래 여러 단계를 거쳤다. 매 시기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는 아시아의 의미, 그리고 지리적, 시간적인 아시아의 정의는 크게 요동쳤다. 그와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가 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소비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관념과 이미지에 결부되었다. 하지만 앞서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과연 그것이 ‘열대 오리엔탈리즘’, 즉 아시아에 대한 남미 대륙의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적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호기심과 관심이 대체로 북대서양 사회,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 품었던 역사적 호기심을 통해 구축된 지식과 표현으로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열대식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에는 필수적인 중심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사이드(1978)의 핵심 주장은 오리엔탈리즘이 타자에 대한 통제(정복, 식민)의 한 가지 양식으로서 생산되는 일정한 형태의 지식이라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가 아시아에 대한 지식을 생산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때로는 동방에 관한 자생적 관념들을 만들어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정복욕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관심을 결코 열대, 주변부적 혹은 일탈적 오리엔탈리즘(심지어 남반구의 오리엔탈리즘 등)으로 명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저 아시아에 대한 다른 유형의 관심과 호기심일 뿐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간의 건전한 호기심은 북대서양 패권 구조에 도전하면서 아시아 지역학의 중심을 옮기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관점을 포함시킴으로써 아시아 연구의 기초를 민주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러한 탐구의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지만, 라틴 아메리카 학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면 더 이상적일 것이다. 그 기반은 이미 매우 유망하다. 역내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국가들이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아

시아 연구에 전념하는 기관은 남미 대륙의 (총 26개국 중) 17개국에 세워졌다. 물론 기관의 존재가 반드시 아시아에 대한 학문 공동체나 지속적 토론의 존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기관 중에 학술지를 발간하는 곳은 고작 다섯 군데이며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여섯 군데에 불과하다는 점은 애석한 일이다. 학술지, 출판, 학술 행사는 지식 공동체의 ‘활력’을 측정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이며 자금의 지속적인 순환과 연구 생산이 (학술지와 단행본을 포함한) 출판물의 공급원이 된다. 남미 지역에서 아시아 연구의 공고화를 통해 (학술지와 단행본의) 출판, 연구 자금의 지원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관련 행사에 라틴 아메리카 학자들의 참석이 촉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아시아 지역학과 사회과학 전체에 가져다줄 잠재적 이점은 매우 크다. 주변부 간의 잊혀진 역사적 유대를 재발견하고 이론적 분석 틀을 비교하며 유럽의 오리엔탈리즘 접근법과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 분석 범주의 어휘를 되살릴 수 있다.

투고일: 2015년 10월 2일 |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20일

## 참고문헌

- Abdel-Malek, Anouar. 1963. "Orientalism in Crisis." *Diogenes* 11, 103-140.
- Agnew, John A. 1989. *Power of Place: Bringing Together Geographical and Sociological Imaginations*. Boston: Unwin Hyman.
- Amaral Lapa, José Roberto Do. 2000. *A Bahia e a Carreira da Índia*. São Paulo: Hucitec.
- Antunes, Luís Frederico Dias. 2001. "Têxteis e metais preciosos: novos vínculos do comércio indo-brasileiro (1808-1820)." In Fragoso, J. et al., eds. *O Antigo Regime nos trópicos: A dinâmica imperial portuguesa* (séculos XVI-XVIII).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 Arzú, Marta Helena Casaús. 2001. *El vitalismo teosófico como discurso alternativo de las elites intelectuales centroamericanas en las décadas de 1920 y 1930*.

- San José (Costa Rica): Universidad de Costa Rica.
- \_\_\_\_\_. 2002. "La creación de nuevos espacios públicos en centroamérica a principios del siglo XX: la influencia de las redes teosóficas en la opinión pública centroamericana." *Revista Historia* 46, 11-59.
- Boxer, Charles. 1969. *The Portuguese Seaborne Empire, 1415-1825*. London: Hutchinson.
- Gregory, Derek. 1994. *Geographical Imaginations*. Oxford: Blackwell.
- Hincapié, Luz. 2012. *Rutas del Pacífico: inmigrantes asiáticos a América Latina*. XIII Congreso Internacional da Aladaa. Bogotá.
- Martins, José F. Ferreira. 1950. «*Orientalismo português e ocidentalismo asiático*». *Separata do XIII Congresso luso-espanhol para o progresso das ciências*, tomo VIII (7.<sup>a</sup> secção), 373-381.
- Miyoshi, Masao and H. D. Harootunian. 2002. *Learning Places: The Afterlives of Area Studi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Pinheiro, C. C. 2015. "Las muchas encarnaciones de Tagore y los escritos de su espíritu." In Klengel, S. and A. Ortiz Wallner, eds. *SUR/SOUTH: Poetics and Politics of Thinking Latin America-India*. Frankfurt and Madrid: Vervuert/Iberoamericana (Reihe Bibliotheca Ibero-Americana).
- Reissner, Paul. 1980. *El indio en los diccionarios. Exegesis lexico de un estereotipo*. México: Instituto Nacional Indigenista.
- Said, Edward.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 Sauvy, A. 1952. "Trois Mondes, Une planète." *L'Observateur* 118, 14.
- Subrahmanyam, S. 1993. *The Portuguese Empire in Asia, 1500-1700: A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London; New York: Longman.
- Teixeira Leite, José Roberto. 1999. *A China no Brasil*. Campinas: Ed. Unicamp.
- Tilly, Charles. 2000. "How do Relations Store Histor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721-723.
- Van Schendel, Willem. 2002. "Geographies of Knowing, Geographies of Ignorance: Jumping Scale in Southeast Asia."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0, 647-668.
- Varadarajan, L. 2005. "Indo-Portuguese Textiles – New Orientations." In da Silva Gracías, F. et al., eds. *Indo-Portuguese History: Global Trends*, 251-260.

Proceedings of the XI International Seminar on Indo-Portuguese History –  
Jubilee Session. Panjim: Goa.

